

## 중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및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

안현선\* · 이형실\*\*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Application of Family Life Part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the Middle-school Students

Ahn, Hyun-Sun\* · Lee, Hyong-Sil\*\*

*The Doctorial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Dept,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self-esteem on application of family life part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the middle-school stud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00 students of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who reside in Seoul and 878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showed more applications of a characteristic of adolescent in family life part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than female students. Second,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on middle-school students' application the family life part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wer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self-esteem. Middle-school students' application of family life part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and self-esteem.

**Key Words:** 가족생활영역 활용도(application the family life part), 부모와의 관계(relationships with parents), 자아존중감(self-esteem).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는 사회 뿐만 아니라, 가정, 인간에게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가정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기능들이 점차 사회로 이전되고(김경숙·박미금, 1998), 인간관계는 기계적, 타산적이 되어 인간성 상실이라는 인간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인간은 심신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보금자리로 가정과 가족을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되었다(한혜숙, 1992). 이에 가정교과는 2001년에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와 내용영역을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관리>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여,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전세경, 1998). 또한 2007년 2월에 고시된 기술·가정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영역을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의 두 영역으로 구성하여, <가정생활>의 목표로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으로 두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러한 가정교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도덕적으로 나와 가족, 타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조호정·안숙자, 2000),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생활영역의 활용도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가족생활영역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가족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생활에서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을 활용하는데 있어 나와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가족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족은 일생동안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환경이고, 그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하여 자녀의 성격형성, 인지발달, 잠재적 능력 발달,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강영

자(1997), 김혜영(2000)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고, 김연옥(1992), 민영한(1997), 이승국(1995)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동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Rosenberg, 1978).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 및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불확실성, 열등감, 무력감 및 자신의 판단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찬란(2005), 유한규(1997)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며, 김용래(1993), 이지연(2003), Glanz(1993), Greene & Uroff(1989), Skaalvik(1983)는 자아존중감이 학업 동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인 중학생의 가족생활과 관련되는 요인이며, 학습동기와 학습 성취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교과의 활용도를 연구한 기존연구(신동순 외, 1997; 오현주·홍성야, 1997; 이강분·최목화, 1994; 한혜숙, 1992)에서 여학생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교과가 남아 공통이수과목이 되었고, 지금수와 이진숙(200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가정교과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정교과의 가정생활영역 활용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가정교과 가족생활영역의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나와 가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가정교과가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교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의 고찰

### 1. 가정교과의 활용도

가정교과는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로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어 학생들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교과이다(조호정·안숙자, 2000). 이러한 성격을 지닌 교과로서 가정교과를 학습한 후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교과내용을 활용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정교과의 활용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현숙과 김기남(1989)은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교과의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하였고, 가정의 생활 만족도가 클수록, 여성이란 점에 만족할수록 학습내용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숙과 박미금(1998)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 활용도와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식생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의생활'영역의 순으로 활용도가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청소년의 발달의 특징', '청소년기의 식습관과 영양문제', '청소년기의 영양의 특성', '나의 자원관리'등 청소년기에 속해있는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준임(1996)은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서울 시내 남녀 중학생의 학습 내용, 흥미도, 실생활 활용도 연구에서 학생 자신의 흥미도와 집 안 일을 돕는 정도, 가정교과 선호도 정도와 같은 변인이 흥미도와 실생활에 적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집안일에 많이 참여할수록, 가정교과를 좋아할수록 흥미도와 활용도가 모두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생활영역의 활용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혜숙(1992)은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필요도, 흥미도, 실생활 적용도의 연구에서 가정과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가족영역에 대한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다소 높은 적용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중·상류인 학생집단이 하류

학생집단 보다 가족생활, 청소년의 특징을 실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학생집단에서 적용하는 태도가 높았다.

김승현과 정옥분(1997)은 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간발달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주관적 학습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생리적 발달', '가정생활에서의 나의 역할'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문과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한편, 남녀중학생의 가족영역 실생활 적용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여학생의 실생활 적용태도가 적극적이었고(한혜숙,1992), 신동순 외(199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의 활용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와 홍성아(199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가 실제 생활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경자(1997)는 중학교 남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가정교과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였다. 지금수와 이진숙(2002)도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과 일의 이해' 교과 내용을 더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발달', '성 생리 및 임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 유용성을 높게 인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하고 차이를 규명하여 가정교과의 가정생활영역 지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부모와의 관계

Becker(1984)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나 행동이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arr(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행동이 청소년 초기에 문제

행동 청소년과 어울리는 것을 억제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윤희(1989)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부모에게 애착을 가질 때 청소년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국(1995)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학업성적, 지적 흥미, 사회성, 책임감, 정서상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김혜영(2000), 서찬란(2005)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부모의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나(2003)의 연구에서는 여중생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의 성격이나 행동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 학업동기,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가족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의 관련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자아존중감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하느냐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로서 개인의 성격 발달과 환경 적응 및 긍정적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윤정혜(1991)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지식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유한규(199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보다 불안 성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200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력도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학교, 건강, 사회, 개인 문제에 대해 원만히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최혜란(2002)은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감과 인내력이 높고 자기표현 능력이 강하여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여 부정적인 사건을 거절하고 제한하려고 하므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 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성격,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표현능력, 사회적인 기술, 수행능력, 인내력, 스트레스 대처 등에 영향을 주고 나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므로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 도구

#### 1) 부모와의 관계

중학생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BI(Parent Bonding Instrument)의 14문항을 수정하여 8문항으로 재구성한 이정선(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

중감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청소년의 특성은 .72, 성과 이성교제는 .60, 나와 가족관계는 .85로 나타났다.

3)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한혜숙(1992)의 척도와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8종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기초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에서 '나와 가족의 이해' 내용의 총 22문항으로 단원별로 '청소년의 특성'에서 6문항, '성과 이성교제'에서 5문항, '나와 가족'에서 11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을 일상적 생활 경험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의 활용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 하위영역

2. 조사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일반 중학교 1학년의 남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가족생활영역을 배운 후인 2006년 9월에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06년 8월30일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남녀공학) 1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관한 본 조사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서울시 중학교 7개 학교(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중학교 1학년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실 기재된 2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878부(남학생 437, 여학생 44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878\*)

특 성	구 분	n(%)	특 성	구 분	n(%)
성 별	남학생	437(49.8)	학교유형	남녀공학	678(77.2)
	여학생	441(50.2)		남학교	101(11.5)
아버지 연령	31~40세	89(10.1)		어머니 연령	여학교
	41~45세	474(54.0)	31~40세		291(33.1)
	46~50세	239(27.2)	41~45세		444(50.6)
	51~55세	54(6.2)	46~50세		117(13.3)
	56~60세	5(0.6)	51~55세		11(1.3)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28(3.2)	어머니 학력	56~60세	3(0.3)
	고졸	262(29.8)		중졸이하	37(4.2)
	대졸	399(45.4)		고졸	374(42.6)
	대학원졸	140(15.9)		대졸	329(37.5)
아버지 직업	생산직,기능직	172(19.6)	어머니 직업	대학원졸	92(10.5)
	판매,서비스직	142(16.2)		생산직,기능직	32(3.6)
	사무직	313(35.6)		판매,서비스직	166(18.9)
	관리직	116(13.2)		사무직	147(16.7)
	전문직	79(9.0)		관리직	14(1.6)
	실직, 전업주부	22(2.5)		전문직	69(7.9)
			실직, 전업주부	427(48.6)	

\* 변수마다 총 응답자수에는 무응답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표 2〉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의 차이

	전 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가족생활영역전체	799	75.69	12.95	390	76.18	13.11	409	75.22	12.79	1.05
청소년의 특성	869	20.88	3.97	432	21.25	4.15	437	20.52	3.75	2.73**
성과 이성교제	839	17.61	3.63	411	17.47	3.62	428	17.74	3.65	-1.05
나와 가족관계	840	37.08	7.37	416	37.26	7.28	424	36.90	7.47	.70

\*\*p < .01

〈표 3〉 성별에 따른 하위영역별 '청소년의 특성' 활용도의 차이

가족생활 하위영역	문 항	남			여			t
		N	M	SD	N	M	SD	
청소년의 특성	신체변화 인식	437	3.83	.97	441	3.77	.97	.94
	규칙적인 생활	437	3.32	1.09	441	2.96	1.08	4.98***
	자신의 정체 파악	437	3.20	1.29	441	3.15	1.23	.61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435	3.59	.95	440	3.63	.86	-.56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형성	435	3.61	.91	439	3.46	.90	2.33*
	자신의 장단점 파악	434	3.70	.96	439	3.55	.95	2.31

\*p < .05 \*\*\*p < .001

3. 자료 분석 방법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 (SPSS inc, Chicago, ILL)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과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고,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 및 각 하위영역별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의 차이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의 차이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를 비교해 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하위영역별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특성'단원의 활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2.73, p<.01)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청소년의 특성' 단원을 실생활에서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족생활 하위영역 '청소년의 특성'의 문항별 결과는 <표 3>과 같다. '청소년의 특성'의 문항 중 '규칙적인 생활'에 관한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실생활에서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98, p<.001$ ). 또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2.33, p<.05$ ),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에서 ‘청소년의 특성’ 내용 중 성장을 위해 고른 영양섭취와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6차 교육과정 이후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정교과를 함께 학습하여 남학생에게도 가정교과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인 중학생은 신체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는 시기이기도 한데, ‘청소년의 특성’ 단원은 중학생 특히 남학생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와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기에 취해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지향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대한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이에 앞서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54$ 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 $\beta=.43, p<.001$ )가 중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beta=.41, p<.001$ ) 순이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46, p<.001$ ), 부모와의 관계( $\beta=.35, p<.001$ )이고, 이에

〈표 4〉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

	변 수	전 체		남 자		여 자	
		B	$\beta$	B	$\beta$	B	$\beta$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	부모와의 관계	.84	.43***	.72	.35***	.96	.51***
	자아존중감	.76	.41***	.85	.46***	.66	.35***
	F	285.85***		125.48***		166.00***	
	R <sup>2</sup>	.54		.52		.57	
‘청소년의 특성’ 활용도	부모와의 관계	.13	.22***	.11	.17***	.16	.29***
	자아존중감	.28	.49***	.32	.54***	.23	.42***
	F	169.15***		96.61***		74.55***	
	R <sup>2</sup>	.39		.43		.36	
‘성과 이성교제’ 활용도	부모와의 관계	.16	.28***	.13	.24***	.18	.32***
	자아존중감	.15	.29***	.15	.30***	.15	.27***
	F	86.55***		38.81***		48.46***	
	R <sup>2</sup>	.26		.24		.27	
‘나와 가족관계’ 활용도	부모와의 관계	.56	.50***	.48	.41***	.64	.59***
	자아존중감	.33	.32***	.38	.37***	.29	.26***
	F	298.23***		118.47***		189.24***	
	R <sup>2</sup>	.54		.49		.60	

\*\*\*p < .001

대한 설명력은  $R^2=.52$ 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남학생은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beta=.51, p<.001$ ), 자아존중감( $\beta=.35,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57$ 이다. 즉,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특성’ 활용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49, p<.001$ ), 부모와의 관계( $\beta=.22,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9$ 로 이러한 요인들이 가정교과의 ‘청소년의 특성’ 활용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가정교과의 ‘청소년의 특성’ 단원의 활용도가 높았다. 남학생의 가정교과의 ‘청소년의 특성’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54, p<.001$ ), 부모와의 관계( $\beta=.17,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43$ 이다. 또한 여학생의 가정교과의 ‘청소년의 특성’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42, p<.001$ ), 부모와의 관계( $\beta=.29,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6$ 이다. 즉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남녀 학생이 모두 가족생활하위영역 ‘청소년의 특성’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과 이성교제’ 활용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29, p<.001$ ), 부모와의 관계( $\beta=.28,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26$ 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가정교과의 ‘성과 이성교제’ 활용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가정교과의 ‘성과 이성교제’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30, p<.001$ ), 부모와의 관계( $\beta=.24,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24$ 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남학생은 ‘성과 이성교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가정교과의 ‘성과 이성교제’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beta=.32, p<.001$ ), 자아존중감( $\beta=.27,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27$ 이다. 즉,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성과 이성교제’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나와 가족관계’ 활용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beta=.50, p<.001$ ), 자아존중감( $\beta=.32,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54$ 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가정교과의 ‘나와 가족관계’ 단원의 활용도가 높았다. 남학생의 ‘나와 가족관계’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beta=.41, p<.001$ ), 자아존중감( $\beta=.37, p<.001$ )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49$ 이다. 또한 여학생의 ‘나와 가족관계’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beta=.59, p<.001$ ), 자아존중감( $\beta=.26, p<.001$ )이다. 즉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녀 학생 모두 ‘나와 가족관계’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하위영역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교과 가족생활영역의 활용도 차이를 살펴보고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하위영역별 활용도에서, ‘청소년의 특성’ 단원의 활용도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청소년의 특성’ 단원을 실생활에서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특성’의 문항 중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한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실생활에서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실생활에서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 ‘청소년의 특성’에서 남학생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대한 활용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학생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기에 취해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지향하는데 가정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들에게도 가정교과의 학습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의식이 바뀌고, 가정에서도 남녀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증가, 가족해체, 가족원 소외 및 무관심, 가족폭력과 같은 가족 문제 및 사회적 병리 현상에 접해있는 중학생에게 가정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가족에 대한 내용이 가정교과에 필요하다. 또한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영역에 대한 내용은 예방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게 하는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생활영역의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와 가족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으면, 실생활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되어 가족생활영역의 실생활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

계가 긍정적일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의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인 자신이 인식한 부모와 자신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의 확대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 하기가 쉽다. 따라서 가정의 안녕과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가정학이 모 학문인 가정교과는 학생들이 가족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한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갈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서 바람직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으로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실생활에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므로 학교, 사회, 가족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가정교과에서는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학생이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을 학습한 후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와 가족의 이해에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노력과 가족원과의 관계회복 및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지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녀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정교과의 교수학습방법이 학생들의 경험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가정교과의 내용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생활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교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전체 중학교 학생의 결과로 일반화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학년 학생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대한 척도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8종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와 부모와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조사하였으나,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은 가족생활영역의 중복된 내용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자신이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가정교과 가족생활영역의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나와 가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가정교과가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교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에 있어 나와 가족의 이해에 대한 내용의 확충과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되어 가정교과가 학생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생활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교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영자(1997). 고등학생들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들의 음주, 흡연, 약물남용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6(2), 27-36.
- 고현숙, 김기남(1989).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1), 19-31.
-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_\_\_\_\_(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 교육인적자원부(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 김경숙·박미금(1998). 중학교 학생의 가정교과 활용도와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0(1), 95-106.
-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현, 정옥분(1997). 제 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와 학습만족도 및 주관적 학습효과 연구 - '인간 발달 및 가족관계'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2), 47-67.
-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설명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옥(1992). 학습시간 지능지수 학습동기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나(2003). 여자중학생의 당면문제에 대한 가정교과의 실천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길미(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경자(1997). 중학교 남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2), 1-15.
- 백연화(1998).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한(1997).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찬란(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신동순 외(1997). 중학교 남녀 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 효과-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1), 71-82.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현주, 홍성아(1997). 인천시내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1), 19-37.
- 유한규(199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정혜(1991).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제감, 진로의식 성숙과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강분, 최목화(1994). 가정교과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6(2), 59-71.
- 이승국(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2006).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 요인과 우울간 관련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임(1996). 제 6차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 흥미도와 실생활 적용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3).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 동기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진(2005). 부모간 갈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부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세경(1998). 실과교과에서의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을 위한 試論(1) -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적 필요성 및 내용-.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1(2), 1-14.
- 조호정·안숙자(2000). 중학교 가정교과 중 식습관 단원에 실 천적 문제해결과정을 적용한 수업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2), 29-45.
- 지금수, 이진숙(2002).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인지에 관한 연구-중학교 '가족과 일의 이해'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3), 77-88.
- 청소년문제연구소(1989).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문제연구소.
- 최혜란(2002).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당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숙(1992). 남녀 중학생의 가족영역 가정교육에 대한 필요도, 흥미도, 실생활 적용도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Becker, W. C. (198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C. Hoffman,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development*(pp. 78-86). NY: Sage Foundations.
- Glanz, N. L. (1993). Self-esteem and achievement: *Case study of success with elementary at-risk students.*
- Greene, B. & Uroff, S.(1989) Apollo high school: Achievement through self-esteem. *Educational Leadership*, 46(5), 80-81.
- Grych, J. H., Seid, M., & Fincham, F.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Pres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101, 53-68
- Rosenberg, F. R.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Skaalvik, E. M. (1983).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valuing of the school-some sex differences.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3, 299-306.
- Warr, M. (1993). Parents, peers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1), 247-264.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 차이를 살펴보고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의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최종 878부(남학생 437명, 여학생 4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의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영역별 활용도의 차이에서는 ‘청소년의 특성’단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형성’의 문항에서 남학생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가 높았고, 하위영역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실생활에서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7월 27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8월 17일